

# 현대 한국유교의 학문적 조명

서경요\*

## I. 종교의 유학적 개념

종교는 정의를 내리기 매우 어려운 개념이다. 동양에서는 종교라는 어의를 궁극적인 진리인 가르침으로서 이를 전승해 나가는 형태로 생각했고, 서양에서는 이를 초월적 형태로 설정하는 경향에서 그 바탕에 인간관과 신관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궁극자에 관한 관심과 연계된 상징성으로서의 함축성을 종교가 가지고 있으므로 종교는 하나의 문화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유교는 표층적으로는 윤리도덕이라 하고 심층적으로는 종교적이며 종교성을 지니고 있을지는 몰라도, 서양적인 개념의 종교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 敎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은 가르침이라는 교화의 의미가 강조되어, 으뜸가는 혹은 전통적인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따라서 신념과 관행에 따른 특정한 전통으로 보는 것이 유교적인 풀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는 인간 중심의 사상이기 때문에 만물(造化)을 논의하는 문제는 천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비롯한다. 하늘이란 자연현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내재해 있는 하늘이다. 天地人 三才사상은 인간 속에 자연으로서의 천지가 들어 있다는 생각이며, 이를 통하여 인간의 조건이 설명되는 것이다. 天圓地方의 형상처럼 인간도 머리가 둥글고 발이 모가 나서 천지를 겸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입체적으로 直立해 있기 때문에, 천지가 만나는 곳은 우리의 신체부위에서 말한다면 코와 입 사이인 人中이다. 이를 나타낸 상형문자가 바로 ‘말이올 이(而)자’인 것이다. 그리하여 形而上者를 謂之道라 하고 形而下者를 謂之器라고 하여, 두루 통하는 길처럼 모두를 뚫고그릴 수 있는 상징으로서의 道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말하고, 그릇처럼 그것에 한정되어 국한되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라 한다. 이를 卦로 표

\* 성균관대 교수, 유교철학

시하면 道는 하늘을 상징하는 乾卦가 되고, 器는 땅을 상징하는 坤卦가 된다.

하늘의 현저한 현상은 日月星辰이며 이것은 自然神이 아니다. 인간에 있어서 하늘은 나 위에 있는 것인데, 그러한 현상은 父祖이며 이는 祖上神이 아니다. 따라서 生滅이 있어 있다가 사라지는 인간에 있어서의 生死가 문제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生命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現世를 중시하는 것이다. 장례는 죽은 이를 기준으로 의식이 행해지지만 제사는 살아있는 자를 중심으로 치루어지는 의식이다. 宗이란 사당이라는 집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특히 示란 '위 상(上)자'와 '내 천(川)자'로 이루어진 합성자로서 저 높은 곳에서 내리는 세 개의 빛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日月星辰을 나타낸 문자인 것이다. 그래서 종교란 사당에서 내리는 가르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 가르침이란 來世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인간 세상인 天下에서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고 일상생활에 日用하는 도, 다시 말해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인 것이다. 이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다름 아닌 유교의 경전이다. 그것은 성현에 의한 말씀으로 구체적인 것이다.

## II. 繼世사상과 祭禮

우리 인간은 世代를 계승해 가는 역사적 존재이다. '세상 세(世)자'는 30년을 뜻한다. 一世를 터울로 할아버가 아버를 낳고, 아버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손자를 낳고, 손자는 증손을 낳는다. 나를 기준으로 연결고리를 이룬다. 하늘 아래 天下에서, 땅속이 아닌 지상 그 現世에서, 인간으로 부자간에 한 목숨으로 맞물리어 자자손손 대물림하여 生生한다. 天上과 地下가 아닌 인간세상에서 血緣과 공동체를 바탕으로 사회를 이루어 살아 왔다. 봄철은 만물이 소생하고, 여름은 모든 것이 무성하게 성장하고, 가을은 거둬들이며, 겨울은 다시 새봄을 위해 저장하는 계절이다. 자연의 목숨이 순환한다는 식물적 사고를 가지고 생활한다. 出世間이 아닌 현실로서 모든 것을 世間으로 끌어들이며, 나의 생존세간을 확인하는 것이 조상숭배사상으로 나타난다.

인간이 종교에 귀의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극복으로부터 비롯한다. 우리 고대인들이 생각한 繼世사상은 죽음이 無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도 生을 계속한다는 죽음에 대한 신앙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현세의 선악과 신앙 여하에 따라 來世에 가서 생을 계속한다는 것도 아니고, 불교에서 불멸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동시에 인과응보로 다른 육체로 들어가서 생을 계속한다는 것도 아니다. 계세사상은 사후에도 영육이 함께 매장된 지하에서 현세의 공과 죄 여하에 관계없이 현세처럼 정신적·물질적 생활을 계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고대인들이 장례 때 鼓舞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풍속을 가지고 있음도 이러한 죽음에 대한 신앙에 기인한 것이다.

이승에서 매일 낮을 대하던 조상 부모를 이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당연히 슬프고 섭섭한 일이므로 뗏을 하는 것은 자연스런 인정이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조상은 저승에서도 현세처럼 생활을 계속하며 자손들도 죽게 되면 같은 저승에서 조상을 對面할 수 있다는 사상이다. 三年喪이란 공경을 가르치고 공경은 두려운 위엄의 자취를 남겼다. 이 제도는 은혜에 감사한다는 報本返始로서 근본에 보답하고 시초로 돌아간다는 생명의 연속에 대한 경하이며 인간의 본원에 대한 追念으로, 孝사상은 생명에 대한 사상인 것이다.

제사는 피붙이들의 집회이다.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나는 없는 것과 같다. 인간의 생사문제는 하늘에 달렸다. 하늘은 가까이 말하면 조상이다. 내 목숨은 내 소수가 아니라 부모자손을 잇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세상은 사람이 천지간에서 삶을 살아가는 세계이다. 이것을 종교적으로는 이승과 저승으로 구분하고, 前生과 來世를 現世와 더불어서 시간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인간은 오직 나 하나만이 시간과 공간을 유영하며 살아간다는 생각에서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죽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문제에 봉착한다.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를 따져 볼 때, 可視的으로 말한다면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 그리고 나, 나에게서 자식 그리고 손자에게로 무한하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어져 있다.

따라서 현재의 나는 곧 과거 속에서 살았던 나의 조부인 것이요, 미래 속에서는 나의 손자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살아 생전에 三代가 함께 살아 할아버지도 뵈고 손자도 본다는 것은 내 자신이 시간적인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분명 우리들의 전통적 관념으로서, 孝사상은 생명론적 사고가 저변에 살아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불교의 윤회 사상에 의하면 나는 전생에 무엇이 되어 살다가 今生の 인간인 나로 살고 있으며, 내세에는 모든 고통과 번뇌를 떠나 육체의 굴레를 벗고 극락에서 영생하는 우리를 설법으로 말하고 삶과 죽음에 관한 生死 문제를 超克시키고 있다.

또한 기독교의 復活 사상에 의하면 나는 원죄를 속죄하여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받아 천당에서 영생하는 우리를 설교함으로써 인간을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교적 이해로서는 인간 세상을 이어가는 繼世사상으로 인간 생명을 목숨으로 계승해 가는 현실 그 자체를 중시한다. 따라서 현세를 어떻게 하면 이상적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문제점이 되는 것이다. 과거에 대해서는 봉제사를 통하여 조상을 섬기는 것이요, 미래에 대해서는 자식 농사를 잘 하여 불초자가 아니라 할아버지를 닮은 자손을 길러 내는 일이 인간사의 가장 큰 일이다.

이렇듯 세상은 사람과 사람이 목숨을 시간적으로 계승해 가며 함께 사는 사람과 공간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時空의 제약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도가 바로 世道라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을 이끌어 가는 사회적 상황이므로 어떻게 세상을 꿈살이로 만들어 즐겁고 평안한 悅樂사상에 젖어 살 것인가를 제시하는 방법인 것이다. 인간은 무리를 지어 群居함으로써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또한 동물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 풍속이 어울려 사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 풍속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같은 시공 속에서 사는 사람끼리는 엇비슷한 습속으로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기 때문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인정과 욕망은 근본에 있어서는 모두가 같은 것이다. 수고롭지 않게 살고 싶고 가장 인간답게 문화적인 삶을 꾸리고 싶은 것이다. 인간의 대욕망은 살려고 하는 生心에서 비롯한다. 순수 의욕으로서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食色에 관한 생명욕과 사람답게 살고자 立身揚名 하는 명예욕이 있다. 개인의 삶은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하며, 사회적으로 남을 위해 어떠한 봉사를 하여야 할 것인가도 우리의 바램 속에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을 완전하게 성취하기는 그다지 쉽지 않다. 욕심은 채우고 채워도 성이 차지 않는 법이어서 항상 어떤 일이고 결핍을 느끼게 마련이다. 그러한 부족을 보완해 가는 것이 우리들의 人間事이다. 정서적인 결핍은 우리를 불안에 휩싸이게 하고 신체적인 결핍은 敎完을 받아야 하는 불구가 되는 것이다. 심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외적으로 갖추지 못하면 내외가 서로 어울리지 못하여 우리를 사람답지 못하게 한다. 실성하거나 짐승 같은 행동을 저질러서 사람 사는 일을 망치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남녀로서 태어나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를 기다리는 待對의 관계를 가

지고 산다. 서로가 결핍을 채우려는 것이다. 우리 몸은 무언가 결핍되었을 때 그 영양소를 절실하게 찾아 먹는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몸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하며 마음이 놓이게 만드는 것이다. 핏(乏)자의 비뚤어진 가로획을 바로잡아 주면 바를 정(正)자가 된다. 정사를 돌본다는 것은 어느 별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잡아 나가는 일인 것이다. 인정에 있어서 불안과 불평이 없도록 메꾸어 줌으로써 온전하게 만들어 完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이들에게 송사가 있다고 하자. 그때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는 방법은 일단 인정에 호소를 하는 것이다. 인심의 근본은 모두가 똑같은 것이므로 인간의 마음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 訟事의 판결이 막힌 마음에 물꼬를 터놓듯 두 사람이 원망과 다툼이 없어야 서로 편안해 하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게 해 주어야 공정한 것이다. 어느 한 사람의 편을 든다면 그것은 過不及과 편중된 결과여서 中庸의도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유학에서는 인심의 교화를 중시하는 것이며, 그것은 학교라는 기구를 통해서 기초를 마련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좋은 풍속을 이루도록 만드는 일을 중시하는 것이다. 세상을 이끌어 가는 세도는 사회적으로 풍속을 고르게 하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인심의 향방이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이 人事를 다루는 爲政의 주요 문제이며, 인심이 올바른 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모든 사람이 공명할 수 있는 세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과 사람이 한데 어울려 사는 것이요, 자연 속에서 모든 물질을 활용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人倫과 日用의 도로써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과 만나고 세상과 만나고 자연과의 만남 속에서 인간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 세상을 살다 보면 서로 원망하고, 서로 다투면서 힘들고 고생스러워 순탄하지가 못하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하는 체념 어린 말들을 곧잘 한다. 이런 말은 내 인생이란 내가 사는 당대에 끝나고 만다는 생각에서 우리들의 삶이 너무 짧다고 한탄하는 뜻이 들어 있다. 오늘날 개인만을 생각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利己의 사고가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시간은 부단하게 흐르고 우리가 사는 공간은 조금씩 다르게 변모하더라도 時空의 한계와 제약을 벗어나기는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나 살고, 남부러운 환경 속에서 살고 간 이들을 몇이나 손 꼽을 수 있겠는가? 사람이 삶을 영위해 가는데 있어서 벌이고 있는 세상사는 모두

가 그러한 시공을 초월하려는 짓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먹고 입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일에서부터 문화적인 일들까지도 하나의 놀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노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능력과 땅으로부터 얻은 물질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조리해 나가는가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한 놀이를 통하여 시간적인 영속성과 공간적인 광활함을 느끼고 자각함으로써 이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좁게 말해서 시간은 우리들에게父子간으로 생명이 이어져 가고, 공간은 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知己 사이에 넓어져 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時空을 벗어날 수 있다.

### Ⅲ. 유교에 관한 학문적 접근

하나의 종교영역 속에서 유교를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천에 관한 관심으로부터 천인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의 문제제기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다. 특히 해방 이후로는 유교 개혁운동에 관한 연구보다는上帝관념, 天觀, 天命觀에 관한 의론들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철학적 원리로서 太極觀, 心性論 등에 관한 논의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孝悌思想의 생명론적 이해를 통하여 계몽을 위한 학문적 접근이 부단히 이루어져 왔다. 이제 그 연구 성과들을 대략적으로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참고문헌

- 금장태, 『동서교섭과 근대한국사상』(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4).  
 김옥희, 『曠菴 李穡의 西學思想』(서울: 카톨릭출판사, 1979).  
 유홍열, 『한국천주교회사』(서울: 카톨릭출판사, 1962).  
 윤성범, 『효』(서울: 서울문화사, 1973).  
 이능화, 『朝鮮基督教及外交史』(서울: 신한서림, 1968).  
 이원순, 『조선서학사연구』(서울: 일지사, 1968).  
 금장태, 「조선유학에 있어서 關異端의 개념과 전통」, 『국제대학논문집』 제2집(서울:

- 국제대학, 1974).
- \_\_\_\_\_, 「茶山의 천개념과 천인관계론」, 『서학』 제25집(서울: 한국철학회, 1986).
- 유준기, 「한국근대유교개혁운동연구」(건국대 박사학위논문, 1993, 8).
- 이을호, 「유교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구원」, 『신학전망』 제71호(광주: 광주카톨릭대학, 1985).
- 정규훈, 「眞庵 李炳憲의 유교개혁사상과 孔子敎 운동에 관한 연구」(한국 정문연 석사학위논문, 1984, 2).
- 최기복, 「유교의 상례에 관한 연구」(서울: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 \_\_\_\_\_, 「조선조에 있어서 천주교의 廢祭毀主와 유교제사의 근본의미」, 『최석우신부화갑기념 한국교회사논총』(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 \_\_\_\_\_, 「유교상례에 있어서 심정의 순화와 의식과의 관계」, 『동방사상논총』(서울: 종로서적, 1983).
- \_\_\_\_\_, 「유교와 서학의 사상적 갈등과 相和的 이해에 관한 연구」(성대 박사학위논문, 1989, 2).